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약사여래나 관세음보살,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들을 정확히 어떻게 구분 짓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깨달은 분들 같은데, 이렇게 구분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사여래 부처님만 계속 마음속으로 외우다가 관세음보살 부처님을 외우고, 상황에 따라 바뀌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려도 괜찮은지요.

A 석가모니 부처님은 약 2600여 년 전 인도의 석가족 출신의 성자로써 진리를 깨달은 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관자재, 관음 등으로도 불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관찰하고 듣는다는 뜻이며, 사바세계 중생들이 괴로움에 허덕일 때 관세음보살님을 불러 구원을 청하면 32음신으로 몸을 나누어 구원해 준다고 합니다.

에 집안 자랑하면서 잘난 척하고, 어떤 유명한 스님하고 친하다느니 어쩌니 하는 모습이 정말 불쌍 사납습니다. 공부하면서 보기 안 좋은 모습만 보고 마음만 상하니 그만둘까 하는 마음뿐입니다.

A 우리는 조금만 자랑 거리가 생겨도 입이 가려워 참지 못하게 됩니다. 주위 친구들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않고 으스스대거나 하고, 같은 도반끼리 이야기 하다가 잠시 자리만 떠도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 실망을 하시면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마음자리를 보지 못하고 불교를 중도 하차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불자님이 평소 생활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무게를 두게 되면 불자님의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겠지요.

**불교공부하는 불자들의 비불교적인 행동이 보기 싫어요
실망하고 포기하면 진짜 공부할 기회 놓치게 됩니다**

약사여래는 정확하게는 약사유리광여래 부처님입니다. 병들어 아픈 사람들이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 간절히 약사여래 부처님께 기도하면 정신적·육체적 병고를 해결해 주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무조건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보살님의 지혜와 공덕을 찬탄하고 산만한 마음을 안정시켜 편안하게 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사찰에서는 불교 기본교리 강좌들이 개설돼 있습니다. 불자로서 올바른 신생활을 하기 위해 이 점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처음에 절에 다닐 적에 부처님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하고 실천하면서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다는 순수했던 그 마음을 불교에서는 '초발심사변정각'이라 합니다. 이 마음 끝까지 가지고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자세로 도반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면 어느 날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깨달으리라 봅니다.

Q 저는 화를 많이 냅니다. 다른 사람들 보다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화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A 한번 화를 내면 백번 도를 닦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나실 때에는 일단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상황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내 마음을 감지 않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 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우리아 힘들게 살았제... 즐겁구먼”

사랑법당 탐방 백양실버타운

국제결혼회사 대표, 라이브 카페 가수, 정년퇴임 교사, 가정주부, 회사원 등 언뜻 보기에 공통분모가 없을 것 같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중증질환 어르신들 요양원에 모여 위문 공연을 했다. 흥겨운 트로트와 민요가 나오고, 살풀이춤과 아코디언 연주가 구성지게 나오면,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할머니 어르신들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9월 16일 전남 나주의 백양실버타운(이사장 원일)에서는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 문화예술팀(팀장 이현하)의 추석맞이 효사랑 한마당 노인위문공연 잔치가 열렸다.

“이렇게 그냥 지나칠 뻔한 명절에 찾아와서 감사하고, 노래와 창, 춤을 보여줘서 너무 기쁘요.”

박선주(남·76) 할아버지는 뇌졸중 치매질환을 앓고 있어 움직이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포뮬러로 연신 즐거움을 표현했다.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요양사 손에 의지해 의자에 앉아있는 어르신이지만 노래가 나오자 입가에는 벌써 미소가 피어났다.

“우리아 힘들게 살았제, 일제강점기가 가고 전쟁 통에 자식 키우고 먹고 살기 바빠 언제 저렇게 놀 수 있었나. 하하. 이제 너무 아파 움직일 힘도 없어. 그라도 오랜만에 보니 너무 즐겁구먼잉.”

많은 연세에도 말 잘하는 재담꾼으로, 젊을 때 고운 얼굴이었을 이양순(여·91) 할머니는 요양사에게 속삭이듯 말을 건넸다.

광주전남지역단 문화예술팀은 이 곳 백양실버타운만 벌써 2번째 방문이다. 이날 방문에는 채송아(불명 백연화), 이훈(불명 정암), 한남아·최경수(불명 월천) 불자의 트로트, 허미라(불명 해월성) 불자의 성주풀이, 명창 광영자(불명 보리행) 불자의 춘향가, 한경자(불명 보리심) 불자의 살풀이 춤, 이소영 불자 외 3명의 한국무용, 원명심·고향희 포교사의 아코디언 연주를 선보였다.

2층 중앙로비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하며 구성진 '성주풀이'를 부른 허미라 불자는 벌써 20년째 라이브 가수이자, 노래화원 강사를 하는



8월 공식 발족한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문화예술팀 회원들이 그동안 취미생활 혹은 직업으로 했던 예능을 모아, 9월 16일 백양실버타운에 계신 어르신들 앞에서 선보였다.

베네라 소리꾼이다.

“어르신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힘이 납니다.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참여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8월 공식 발족한 문화예술팀 18명의 회원들은 그동안 취미생활 혹은 직업적으로 했던 예능을 모아 공연을 준비했다. 이미 이전에도 여러 곳에서 많은 공연을 진행했던 터라 공연은 순조로웠다. 어르신들의 아들, 손자뻘 되는 회원들의 공연은 마치 화갑날의 이쁜 재롱잔치 같은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4명의 불자들이 선보인 한국무용은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정영균 단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포교사들이 자신의 시간을 쪼개 군법당, 소년원, 선포교, 병원, 장례식 등에서 봉사활동과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오늘 행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봉사 장소에서 수행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우리들의 행사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후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행사 후 백양실버타운 이사장 원일 스님(나주 미륵사 주지)은 “인생의 마지막을 병고와 외로움으로 맞이한 어르신들

포교사단 문화예술팀 8월 공식 발족

노인요양시설 백양실버타운 70명 입소

게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물질적 풍요를 만끽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이 어르신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국가이다. 우리가 조그마한 관심과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마지막 생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포교사들의 공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2008년 개원한 조계종유지재단 백양실버타운은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치매는 21명, 뇌졸중은 11명, 파킨슨, 당뇨,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38명의 어르신이 입소해 있다. 입소자격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을 받은 분이면 가능하다.

2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백양실버타운에는 매일 동신대 한의대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생활체육의회 회원들의 어르신 실버체조,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목욕봉사, 전의경 어머

니회 목욕봉사, 직접자 봉사단 목욕봉사 등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원봉사문의 : (061)333-5621 / 농협 637035-55-000474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불교대승종 제2기 승려 기본교육

대한불교 대승종에서는 입종자 및 입종예정자를 위한 승려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대상자는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육기간 : 2554년 10월 16일 - 2554년 11월 20일

과 목 : 습의, 법기실수, 예불, 불공, 시식, 초발심자경문, 불교장례의식, 사찰경영 등 승려 기본 소정 과목

동참대상자 : 불기2553년 불기2554년 입종자 및 예정자

교육장소 : 서울 도봉산 도봉선원(불법의 향기와 선기가 흐르는 천년고찰 지방 중도는 숙식 편의도 가능)

신청일자 : 2010년 10월13일 18:00까지

접수처 :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문의 : 02)952-1074, H·P 010-9363-7827

* 대승불교의 근본인 본 종단에 입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54년 9월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 B상가 APT 303호

“불교 유신”을 다시 생각하다

『조선불교유신론』 집필 100주년 기념 낭독 및 토론회

“아우여 형이여, 들리지 않는가. 이는 파리노리가 아니라 닭의 울음임을!”

2010년 올해는 만해 한용운 선사가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하지 10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만해선사는 민족과 불교의 생존을 위해 불교유신을 주장하였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맞서 불교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휴암스님, 법정스님, 그리고 서경수·이기영 교수의 불교유신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불교유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에도 중생들은 고행과, 빈부의 격차 심화, 정신문명의 황폐화, 환경파괴 등으로 빚어진 사회적 모순에 괴로워하며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는 “불교유신”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전의 유신론을 살피고 오늘의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 일 시 : 불기 2554(2010)년 10월 12일(화) 오후 2시 ~ 5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문 의 :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 02-732-1209
- 내용 및 출연진
낭독 및 토론회 사회 : 성태용 교수

	만해스님	휴암스님	법정스님	서경수·이기영교수
발 제	전보삼 교수	김규철 상임이사	허우성 교수	이민용 교수
토 론	김상현 교수	김광식 교수	이평래 교수	김경집 교수
낭 독	대중결사 회원	대중결사 회원	현장 스님	청년불자

21세기 한국불교 신유신론 : 금강스님

주 최 :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후 원 : 대한불교 진흥원·대한불교청년회·미디어붓다